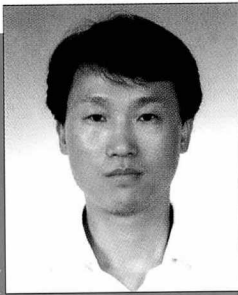


# 2002년을 돌아본다

## 인쇄업계에도 봄바람 오겠지요



프린팅산업진흥회 회장 조영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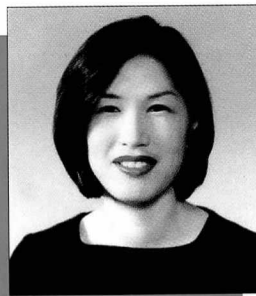
인쇄업에 종사한 지도 20여 년이 꽤 간다. 앞이나 서나 늘 머리 속에는 좋은 인쇄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넘치곤 하지만 막상

인쇄물이 나올 때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나도 이제는 인쇄인이 되었구나 하는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쇄업계는 그동안 변화의 물결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수요의 확대없이 경쟁만 심화되다보니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하기만 한 것은 나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도 변화하려면 투자를 해야되고 기술을 향상시켜야 되는 길 뿐임은 명확하나 영세한 업체로서 이 변화에 편승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이 계절을 수없이 겪어온 우리에게 머지 않아 따뜻한 남쪽에서 봄바람이 불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프린팅코리아는 이 따뜻한 바람이 모든 사람에게 불어오도록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다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프린팅코리아의 건승을 빈다.

## 하이텔때문에 돈 버셨죠?



하이텔협회 회장 김선연

장미빛 기대로 맞았던 2002년은 하이텔베르그에게나 인쇄업계나 만족스러운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마감되는 것 같다. 월드컵의 열기가 업계

에 새로운 바람과 기운을 몰아 넣을 것이라는 기대도 허무하게 식어버렸고, 대선에 대한 기대도 그다지 가슴을 울렁이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금속 활자를 시작으로 한 장구한 역사를 쌓아온 우리 인쇄업계는 늘 그래왔듯이 이 터널을 지혜롭게 뚫고 나갈 것이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장기적으로는 더 내실있고 영향력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저력이 있음을 믿는다. 또한 선구자적 태도로 신기술을 과감히 도입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업체들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접하고 있다. 시장의 개척자로서 어려움은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이다.

개인적으로 2003년에는 하이텔베르그를 통해 좀 더 많은 분이 성공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고 싶은 소망이 있다. 하이텔베르그는 고객을, 고객은 하이텔베르그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서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계획을 세울 것이다.

## 프로는 일로 말합니다

(주)성도GL에 입사한지 1년8개월이 되어간다. 여자의 일생이 바뀌는 주요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그리고 어떤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느냐에 따라 여자의 인생은 바뀌기도 한다.

누구에게나 직장은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

생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이자 또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입사하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산업용 필름과 장비들 그리고 낯선 용어들, 취급하는 상품은 낯설었지만 고객에게 상품을 통해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낮설지 않았다.

‘고객에게 최대의 가치 제공, 직원에게 최고의 일터 제공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이 된다’ 라는 우리 기업의 사훈처럼 밤샘 작업을 하는 우리의 고객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 역시 또 보람찬 하루를 위해 출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프로는 일로써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처럼 나의 업무를 통해 우리의 고객들과 직원들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 난 내일도 처격, 처격 출력소에서 출력하는 소리를 들으며 또 출근을 할 것이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는데 유효기간이 조금 지난 노처녀, 노총각들에게 따뜻한 소식들이 전해지길 바라며 올 겨울에는 나에게도 따뜻한 겨울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도희 (주)성도GL 비서실 과장

## ‘포장’ 아닌게 없어요

포장분야는 어느 산업 못지 않은 규모를 지니고 있지만 아직 주류 산업으로써 인식되기에는 여러 여건상 부족한 점이 많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제3차 물책임법은 식품이나 공산품 등 포장제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대한 준비는 아직도 미흡한 면이 있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포장이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제품들이 생활 속으로 넘쳐나고 있는데, 나의 변화 중 하나는 이러한 다양성을 찾는 것이다. 주말에 대형할인매장으로 생필품을 구입하러 가는 나에게 할인매장은 포장의 보고가 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새로운 형태의 포장이 제품을 담고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팔려나가고 있다. 2003년에는 더 많은 상품들이 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포장이다. 생활의 일부.

## “저는 금속활자 할래요”

“선생님, 훈민정음 해보고 싶어요”

“저는 금속활자 할래요”

한순간에 선생님이 되어 버린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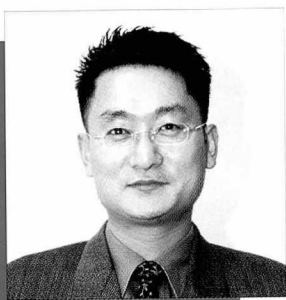
김도희 (주)성도GL 비서실 과장



김도희 (주)성도GL 비서실 과장

바로 덕수궁에서 있었던 책마당 큰잔치에서 고인쇄체험관 지원업무를 나가서였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 눈망을 빚내며 쳐다보던 아이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매우 신기한 듯, 손에 먹물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손으로 인쇄물을 만들어 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처럼 고인쇄체험관은 유치원생들은 물론 초중고생들과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덕수궁을 찾은 외국인들도 20분~30분씩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 만점의 코너였다.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중고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왜 우리나라를 인쇄종주국이라 하며, 인쇄산업이 얼마나 첨단산업인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인쇄가 응용되고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였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쇄관련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생활과 밀접한 인쇄산업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담배' 확실히 끊었습니다



박인연  
책집디자인  
평론가

적어도 하루에 한번은 하늘을 쳐다보자, 담배 참기, 현수(2세 이름) 싸가지 있는 놈 만들기, 사랑스런 가족들을

위하여 내 몸 혹사시키지 않기 등은 2002년 정월 초하루 나의 조출한 계획이었다.

2002년이 거의 저물어 가는 지금 하루에 한번은 아니어도 이틀에 한번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하고 담배는 완전히 끊었

고(담배 먹는 사람을 증오할 정도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현수다.

두돌이 안돼서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 생각은 전혀 할 줄 모른다. 마음대로 안 되면 바로 울어버린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를 꼬집고 난리다. 음식점에 가면 온통 지 세상이다. 나의 부모님도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심정이었을까? 부모님 마음은 부모가 되어야 이해한다고 했던가? 실감난다. 칠순이신 부모님께 지성으로 안부전화 드리고 맛난 것 사 드려야겠다.

### 무계획 속의 변화! 좋았어요



이수정  
HAWOO  
책집디자인

졸업 후 작년까지 걱정과 조급증에만 매여있던 나는 올해 걱정이란 단어를 잊어버리고 시작했다.

무계획 속의 변화! 올해 나의 목표라면 목표였다. 그리고 걱정 대신 현

재, 오늘이라는 하루, 지금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하려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과 생활이 재미있어 졌다. 편집디자인 4년째, 여전히 배워야 할 것들이 내 앞에 산적해 있다. 아니 하면 할 수록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은 나의 걱정만큼이나 늘어나는 것 같다. 이제 2002년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 아직 구체적인 내년 계획은 없지만 우선 한 가지 확실한 건 많이 배우고 실력을 키우고 싶다는 것이다. 다른 일에는 무리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적어가야겠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해내야 할 일을 지워가야겠다.

## 인터넷이 모든걸 바꿉니다

TV와 통신, 개인 컴퓨터가 처음 대중들에게 선을 보이면서 인터넷이란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기까지. 인터넷이 현대 사회의



박준영 피델티트닷컴 웹디자이너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아마 머지않아 인터넷 비즈니스라 하면 사회 전반에 기본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나 역시 이러한 사회의 젊은 브레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인쇄업계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경험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인터넷은 각 사의 고객에 대한 기본서비스이자 기업의 중요한 수익 모델의 하나가 될 것이며 비즈니스의 기본 요소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오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월드컵의 열기와 부산 아시안게임의 환호를 다시 한번 느껴본다.

## 삶은 일상의 반복인가 봐요

어린 시절엔 아버지가 가져오시던 달력 중에서 예쁜걸 골라내 자기 방에 걸어두려고 두 살 터울 동생과 다투던 적도 많았는데,



김은영 신부름제지 경영기획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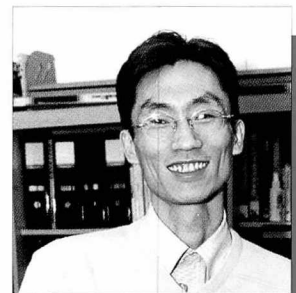
제지회사에 몸담다보니 달력을 만드는 일이 숙제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느낌이 조금 다르다. 항상 업무적인 약속들로만 빼곡이

채워진 사각형이 기나긴 하루를 함께하는 친구 같은 느낌이 든다.

지나간 달력을 들춰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몇 년간 모아둔 달력을 한번에 꺼내 읽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다. 결국 인간의 삶이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된다는 사실을. 2002년을 넘기며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가슴에 안고 있다면 지난해 이맘 때 썼던 일기와 그 시간의 약속을 담아냈던 달력을 꺼내보라고 말하고 싶다. 지금 나 역시 지나간 2002년의 달력을 보며 내년에 어떻게 살지 그 길을 찾았다.

##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올해 붙어닥친 벤처의 어려움은 오히려 잘 된 일 일지도 모른다. 제대로 된 실력 있는 벤처가 살아남는 과정일



김명익 마포이앤씨 대표이사

것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정착되려면 벤처정신이 더욱 더 또렷해져야 한다. 그것은 바로 사자는 굶어죽을지언정 썩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 라는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벤처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과 하기 힘든 것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인데, 어렵고 힘들다 하여 쉽게 할 수 있는 것과 남들이 모두 하는 것을 쫓아간다면 무늬만 벤처이지 장사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해를 정리하면서 진정한 벤처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하고 더 새로운 것, 힘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건설적인 고민이 절실한 때인 것 같다.